

[이슈현안1]

프랑스 사회적 보호제도와 사회보험 개편*

□ 프랑스 사회적 보호 구분 - 사회보장, 사회보호

[그림1] 프랑스 사회보험 법제도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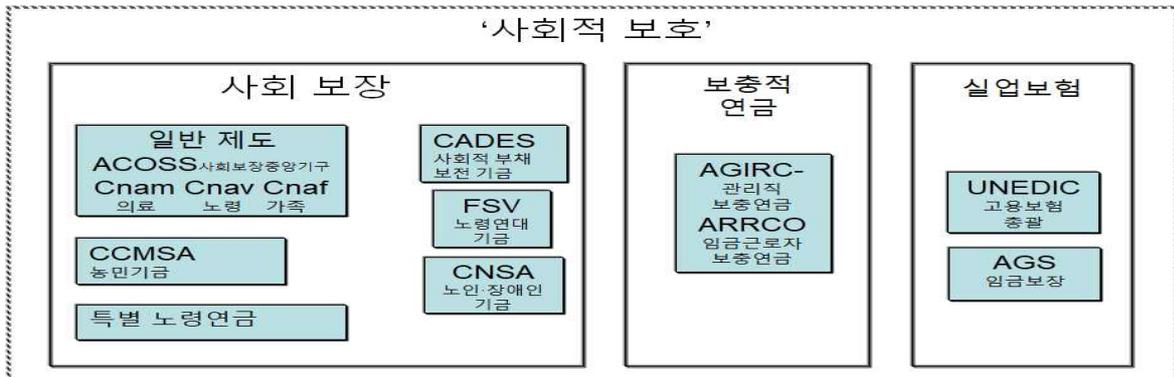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플랫폼의 일반 정보 제공 의무 사회보장법: 이용자 정보를 감독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노동법: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보장 범위 직업 교육 산재/직업병 분담금 사회보장법: 의무가입 하한액 일반사회보장 선택권	자발적 플랫폼, 제3 신고: 이용자 가입 지원 사회보장 신고 (등록) 및 사회보장분담금 납부 지원 일반사회보장 선택권	법령 2018-898호 (2018/10/23 공포)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 세금 및 사회보장 정보 제공 과세 당국에 거래 상세내역을 전자 보고할 의무

가. 일반사회보장

: 프랑스 국민의 약 85%가 수혜 받고 있는 상황

나. 사회보장 분야별 각 기금 관리

: 건강보험기금, 노령보험기금, 가족수당기금



자료 : 프랑스 사회보험 관리기구(ACOSS) 연구진 면담자료 재구성(2019.9.24.). 이하 동일

* 이 자료(이슈현안1)는 최근 사회적 현안인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프랑스 사례를 정리한 것임. 8월말-9월에는 프랑스 시민활동계좌제(이슈현안2)를 소개할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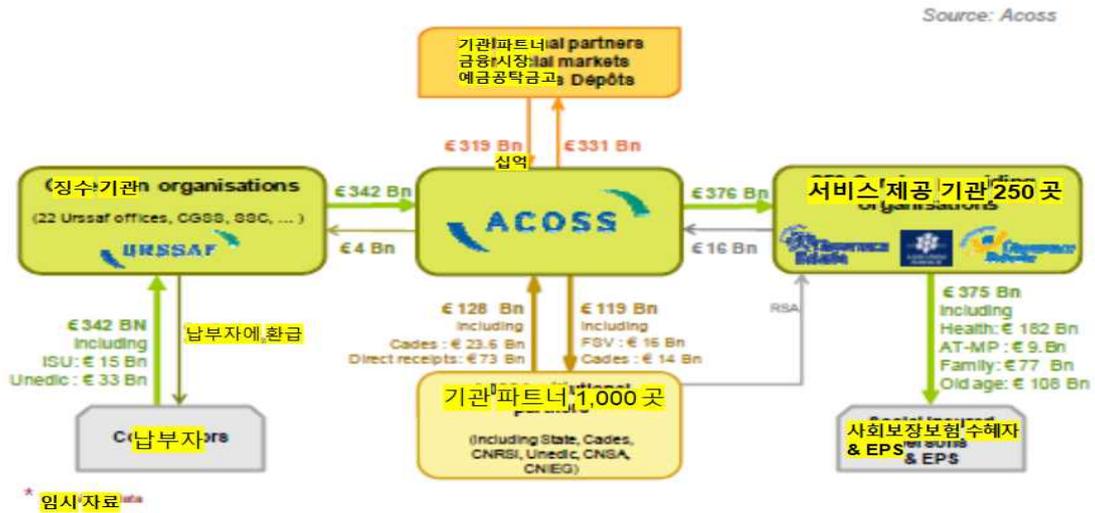
다. 프랑스 사회보호 관리 기구

① ACOSS(사회보장조직 중앙기구) 개요

: 일반사회보장 공동 재정 관리를 위해 1967년 수립. URSSAF(사회보험징수공단)의 현금 흐름을 중앙 관리하기 위한 국가 기구

② ACOSS 목적

: 일반사회보장의 현금 자산 관리와 금융 소득의 최적화. 사회보장 분담금(기여금)을 징수하여, 각각의 보장 기금(노령, 건강, 산재, 가족)에 재분배



② ACOSS 협력기관

: 프랑스 사회보험 기금 관리 배분 연관 부처 및 기관 연계 협력 사업



□ 프랑스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 프랑스 실업급여 개요

* 노사 단체 간 협약 통해 결정. 정부는 협약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승인

* 대위청구 가능성

① 실업보험 제도에 관한 시행령 2019-797호(2019/7/26 공포)

② 보상, 비고용 근로자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 구직신문 실험에 대한 권리에 관한 시행령 2019-796호(2019/7/26 공포)

〈표1〉 프랑스 사회보장과 세제

	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비고
실업보험	++		
연금	+++	+	보장 범위 상이
건강보험	+++	++	건강보험 현금 급여 적음
가족보험	+++	+++	
산재/직업병	+++	+	자영업자는 자발적 보험
과세	=	=	소득세율 동일

〈표2〉 프랑스 업종별 자영업자 사회보험 부담(2019)

주요 활동	사회보험 부담률	직업교육을 위한 부담금 (CFP)	합계
판매	12.80%	0.1%	12.9%
기능직	22%	0.3%	22.3%
상업적 서비스	22%	0.2%	22.2%
자유전문직	22%	0.2%	22.2%

[그림2] 프랑스 일반사회보장 가입 허용 선택권 도입



■ 일반 사회보장 총매출액의 30.55% 15.55%(상한 이내) + 산재율

나. 프랑스 실업보호 담당 조직

①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의 구성

담당 기구		주요 내용
	UNEDIC (전국상공업고용조합)	실업보험 제도 운영과 보험금 지급 체계 결정을 담당하는 이원적 기구
	Pôle emploi (고용센터)	구직자 등록과 상담, 훈련, 배치, 보험금 지급을 모두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기구

② 채용 조달

(1) 실업보험 재원

: 수입에 부과되는 분담금(기여금) - 월별 사회보장 (임금)상한액의 4배 한도 이내(13,508, 2019)

(2) 실업보험 분담금 납부

: 지역 노동자 단체가 정한 자격 있는 징수 기관에 납부 - 도시 지역에서는 URSSAF(사회보험징수공단), 농업 종사자는 MSA(농업사회보장기구), 해외 부문은 CGSS(일반사회보장기금)

(3) 고용센터(Pôle Emploi) → 사회보험징수공단(URSSAF)

: 법령 2008-126호(2008/2/13 공포)

: 실업보험의 현금 운용은 직접 관리, 필요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보유

: 개혁 목표는 기업의 편의(한 자리에서 처리 가능), 비용효율성 제고

(4) 채용조달 개혁

: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자(고용주)만 고용보험 분담금 부담

: 노동자(피고용자) 분담금 종료

(예외) 연예산업 단기계약 종사자, 모나코의 정기급여 노동자, 일부 해외 근무자

: 단계적(2단계) 과징 분담금 감소

1/ 2018년 1월: 2.4% → 0.95%

2/ 2018년 10월: 0.95% → 0%

〈표3〉 프랑스 사회보험 분담 각 영역별 분담 현황(2017)

노동자 사회보장 분담률 Urssaf 납부	전체 %	사용자 부담	노동자 부담	부과대상 소득
건강보험(질병, 출산, 장애, 사망) (1)	7.00(최저임금*2.5) 또는 13.00	7.00 또는 13.00		급여 총액
연대·자립 기금(노인·장애인 장기 돌봄)	0.30	0.30		
가족 수당	3.45(최저임금 * 3.5) 또는 5.25	3.45 또는 5.25		
비계약 노령 보험	2.30	1.90	0.40	
주택 기금	0.50	0.50		
(20인 이상 사업장) 사회적 대화 분담금 (조합 기금)	0.016	0.016		
산업재해	회사별 다름 (연금·산재보험 기금)			
공제가능한 일반사회보장 분담금 (CSG)	6.80		6.80	급여 총액에서 1.75% 공제(직무 비용)
비공제형 일반사회보장분담금	2.40		2.40	
사회적부채상환분담금 (CRDS)	0.50		0.50	
급여상한	15.45	8.55	6.90	사회보장 (임금)상한 *1 이하의 급여
노령 연금 주택 기금 (20인 미만 사업장)	0.10	0.10		
실업 기금(3)	4.05	4.05		사회보장 상한*4 이하의 급여
임금보장 보험(AGS) (4)	0.15	0.15		
합계	43.016 ~ 50.816 (교통분담금 포함)			

(5) 그 외 사항

: 대응조치로 ACOSS에 최초로 부가 가치세 일부 할당

(*부가 가치세의 5.59% = 99억) → 일시적 상황

: 2019년 1월 1일부터, ACOSS로부터 UNEDIC에 일반사회보장분담금(CSG) 지급

(*CNAM의료보험공단 : 부가 가치세의 +2.77%)

: PLFSS사회보장자금조달법 2019: UNEDIC의 손실은 2018년 99억 유로, 2019년(전체) 140억 유로로 예상

: 2018년 ACOSS는 UNEDIC에 96.3억 유로를 보전하고, 부가 가치세로부터 95.27억 유로를 수취. 일반사회보장 부문의 손실은 1억 3백만 유로(2019년 3월 8일 기준)

(6) 합의

: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의 의지

- : 사회보장분담금의 전반적인 감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옴
- : 새로운 점 → 실업보험분담금과 보충적 연금보험분담금 감축
- : 전액 보상 보장
- : 사회보장분담금 → 세금
- : Bonus-malus(차량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지원금/부담금 제도)
- : 기간제 계약(CDD), 임원 보험급여 감소, 최소 노동시간 증가
- : 보험급여 계산법 변경, 사직 후 보험급여, 독립 노동자 보험급여